

고린도후서 강해

김좌근 목사

내쉬빌 새생명교회

[www.NashvilleKoreanChurch.org](http://www.NashvilleKoreanChurch.org)

편집자 주 – 오늘날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부지런해야 하고 다양한 연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당장의 관심사나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회중에게 다가가기 용이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덜 고난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지도 모릅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의 또 다른 단점으로 제한된 주제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아무래도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므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좌근 목사님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결국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 장에서의 베드로의 첫 설교가 좋은 모범을 보여 줍니다. 김좌근 목사님의 천성도 한 몫 합니다. 말씀을 전할때 성령님께 진실만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설교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지난 몇년간 옆에서 지켜보며, 고린도후서 강해를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6-9-02, 고난과 위로 <고후 1:1-11>**

<서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스데바나, 브르나도, 그리고 아가이거 편으로 보내고 난 뒤, 고린도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바울을 더 배척하여 교회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 2의 편지를 써서 함께 있던 동역자인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내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징계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 지역 중 빌립보에 거하던 중 거기서 고린도교회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위로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때까지 회개치 않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며 자신이 곧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고난과 위로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문제들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위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는 고난과 위로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 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제목은 고난과 위로입니다.

**1. 인사 (1-2):** 1.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 3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이름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고전 16:10-11 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교회에 보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사역을 못하고 고린도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가 거기서 바울과 합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고린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고 또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니 함께 있는 디모데의 이름도 편지에 같이 쓰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안에서는 잠깐 만나도 오래된 친구처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있으면 떠나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지만 떠나더라도 계속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이 절은 바울이 거의 편지마다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는 편리함과 자존심을 높여 줄 수는 있겠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요 14:27, 16:33>. 주님께 돌아올 때에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 위로의 하나님 (3-7):** 3. 바울이 지난날들을 회상해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셨을 뿐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환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환란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환란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란을 통해 우리가 순수해지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됩니다. (벧전 1:6-7)\*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그 환란에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을

통해 받은 위로로 다른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5.**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위로도 넘칩니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입니다. (히 2:18)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6.**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 교사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위로에 도움이 되었고, 또,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난 후에 위로를 받음으로 그 경험을 통해, 고난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움의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 바울은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듯이,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에도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같이 참여한 사람은 위로와 기쁨에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3. 바울이 경험한 고난과 위로 (8-11): 8-9.** 이 상황이 특별한 사건 하나를 가르치는 지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받은 고난들을 말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 19:23 절 이하에 보면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건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함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후 6:1-10 과 11:23-29 을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들을 주님을 위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 초기에 그러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나 장점 등이 주님을 섬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의뢰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통해 주님만 의뢰하도록 하십니다. **10.**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러한 어려움에서 성도들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11.**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서로의 기도를 통해 얻은 은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6-16-02, 하나님의 미쁘심 <고후 1:12-24>**

<서론> 고린도전서 16 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교회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바울이 방문했다가는 일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아서 대신 제 2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어 일들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린도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원래 방문하려고 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려했던 계획을 취소한 것은 자신이 불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 중에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여행을 계획했지 인간적인 목적으로 가볍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나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제 주님을 믿고 시간이 흐르다보면 믿음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오게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성도간의 관계 (12-14): 12.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을 대할 때 특별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인간적인 목적이나 인간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나 목회자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인관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사역이나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거나 내 생활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인간 보기에 사역을 잘하고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 7:22-23)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성공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13-1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서로에게 큰 자랑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전해 받은 자가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큰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2. 성실하심에 대한 순종 (15-22): 15-17.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를 재 방문하고 거기서 그들의 모내춤으로 유대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인간적으로 경솔히 계획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18.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9-20. 예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21-2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4 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올바른 번역은 "의인들은 그 분의 성실함에 의해서 살 것이라." 라고 해야합니다. 그 성실함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할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고, 또 생활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 (23-24): 23.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불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당파와 음행과 교인들 간의 고소 문제들을 바울이 가서 직접 보면, 그 사람들을 강하게 징계할 것 같아서 대신 디도를 보냈습니다. 사역이나 목회를 하다보면 때로는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들의 기쁨을 도와 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거나 혹은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잘못하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속성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상대방의 신앙을 도와 주려해야지 주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베드로도 (벧전 5:3)에서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 준다고 그대로 다 따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역시 주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계속 본을 보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 6-23-02,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1-17>

<서론> 오늘의 본문인 고후 2:1-17 에서 바울은 1 장에서 말한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 이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권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1.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 (1-4): 1.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던 계획을 취소한데 대해 고린도 교인들 중 몇몇 사람들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1 장에 이어 계속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는 가능하면 오해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오해를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최선을 다해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상황에서 서로의 충격을 줄이고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2.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뿐인데 내가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방문을 취소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3.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부쳤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면 자신이 기쁨을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근심을 얻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의 편지를 보고 회개한 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4. 바울이 그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도나 사역이나 목회를 하다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보니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인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이 약해졌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도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편지를 쓸 때에 많은 눈물로 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용서 (5-11): 5. 한 사람이 교회에서 큰 죄를 범하면 다른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당파, 음행, 법정 문제, 결혼, 성찬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들을 강조해서 악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자신은 크게 근심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어느 정도 근심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너무 확대해서 악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6. 이제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벌을 받을 만큼 받았습시다. 7. 그러니 그 사람이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라고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성도들은 적절한 조치 후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낙심해서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해를 받게 됩니다. **8.** 그러니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9.**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직 분이 안 풀렸으니 끝까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할까봐서 범사에 자기에게 순종함을 보이라고 권합니다. **10.** 당신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공동체로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한 쪽에서는 용서하고 다른 쪽에서는 용서 안하고 하면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주님 안에서 한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사해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11.**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끼리 서로 반목하게 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향기 (12-17): 12-13.** 다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 갔던 일을 회상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생겼지만 고린도에 간 디도가 너무 궁금해서 그를 만나려고 중간 지점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14.** 그러한 와중에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15-16.**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 주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17.**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나는 냄새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그 자체를 순수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 7-7-02, 벗겨진 수건 <고후 3:1-18>

<서론> 고후 1-2 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 일을 설명한 뒤 이제 3:1 에서 6:10 까지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3 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전한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백성들이 못 보도록 하기 위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도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율법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주님 안에서 다 벗겨진 것이며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참 자유의 진리인 복음을 알게 되고, 장차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벗겨진 수건입니다.

1. 마음에 쓴 추천서 (1-5): 1. 당시에 교회 내에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추천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추천서를 쓰면서 자화자찬을 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추천서를 쓰거나 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곧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에 쓰여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3.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믿게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쓴 것이며, 십계명처럼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돌에 쓴 십계명은 깨어질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마음에 쓰여진 복음의 편지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4-5.**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찾게됩니다. 오 태식 형제, 이 종호 형제 가정이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렇다고 그들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만나겠지만 천국에 가면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귀한 것입니다. 그 만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도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2. 영광의 직분 (6-11):** **6.**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참 만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전할 일군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7-8.** 십계명은 돌에 쓴 것인데 **10** 가지의 '하라'와 '하지마라'가 있습니다. 또, 율법은 **613** 가지의 '하라'와 '하지마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의식화된 문서입니다. 이 죽음을 가져오는 의문의 율법을 전하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면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9.**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정죄의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복음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0-11.**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직분보다는 낫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원한 새 생명을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3. 벗겨진 수건 (12-18):** **12-13.** 출 **34:29-35** 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두 돌 판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겁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법률들 속에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복음은 명확해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14-15.** 그러나 완고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16.**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 수건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면 그 수건이 다 벗기고 복음의 참 뜻을 깨닫게 됩니다. **17.** 율법은 우리를 얹어매지만 진리의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18.** 장차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수건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자신의 아집과 자존심입니까? 자유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돈과 사업과 공부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달혀진 가슴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수건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복음의 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21-02, 보배와 질그릇 <고후 4:1-18>**

<서론> 고후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율법을 전한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정죄의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복음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4장에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복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설교제목은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1. 우리가 전하는 것 (1-6): 1. '이러하므로'라는 말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전파를 맡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고후 3:18 절을 근거로 한 논리적 발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받아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2.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순수하게 진리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자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좀 전하고 기복신앙도 전하고, 자신의 이익도 좀 추구하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갈 1:7-10> <딤후 6:3-5>. 3.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순수하게 전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4.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동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빛인 그리스도를 못 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안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못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5.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시다.'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었다.' 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섬기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막 10:45>. 6.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의 근거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 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2. 보배를 가진 질그릇 (7-12): 7.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생명을 주는 복음의 보배를 보잘 것 없는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8-9 이러한 확실한 현실파악이 되어 있으면 일이 잘 되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10.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의 부활하신 새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11. 비록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더라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2.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랑과 희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내가 동참할 터이니 그 분의 영광의 새 생명에는 당신들이 참여하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입니다.

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3-18): 13. 원래 시편 116:10 은 "내가 곤란 중에 있다고 말하지만 역시 나는 믿는다" 라고 해석됩니다. 다윗이 환란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었듯이 바울도 순교 직전에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4.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부패해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롭게 됩니다. 주님을 믿은지 오래될수록 더 믿음이 깊어가고 더 순수해져야 할 것입니다. 17.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환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롬 8:18). 그 만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18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사업, 학위 등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전파와 주님의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에 보다는 보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8-4-02,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21>

<서론> 고후 4 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영광된 직분을 맡은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복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힘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5:1-21 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또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 시키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 영원한 집을 향한 소망 (1-10): 1. 시간이 지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는 천막이 겉히듯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세상 육체의 천막이 무너지는 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2-3.

우리가 현세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하늘 나라를 바라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고 벗은 자 즉, 죄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 함입니다. **4.**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것은 현세를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함을 덧입고자 함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게 삼키우는 순간이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5.**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6-7.**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의 안락을 누리게 되면 자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약 **4:4** 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고 요일 **2:15** 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 1:23 참조>. **9.** 그러나 이 세상에 있더라도 여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전 10:31 참조>. **10.**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약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 (Condemnation)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계 20:12-14 참조>.

**2. 그리스도를 위한 삶 (11-15):** **11.**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도록 권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2.**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3.** 바울은 복음을 위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정신이 온전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4.**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15.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3. 하나님의 사신 (16-21): 16. 복음 안에서는 육체적인 조건을 따라 인간을 평가하고 대우하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믿은 후에는 그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압니다. 17.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안에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안에 있게 됩니다 <요 1:12> <계 3:20>.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 3:3-5>. 18. 이 구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과 화목하시고 또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 다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이 세상과 화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다 예수님께 옮겨 놓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0. 그래서 사신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21.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며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신, 즉 대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이미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확인하십시오.



**8-11-02, 믿는자의 아이러니 <고후 6:1-18>**

<서론> 지난 주일은 고후 5 장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또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 시키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전하는 일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6:1-18 에서 바울은 1-10 까지 복음전하는 직분에 얽혀진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을 말하고, 11-13 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힐 것을 권고하고, 14-18 에서는 믿는자가 세상과 분리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제목은 믿는자의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 (irony) 란 말의 뜻은 전혀 예상 밖의 결과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믿는자에게도 예상 밖의 일이 종종 일어나고, 또 믿는자는 예상 밖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1. 사역의 아이러니 (1-10): 1.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자를 핍박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 구원 사업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나서도 그것을 헛되게 여기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2. 은혜받을 때와 구원의 날은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고 구원을 얻을 때니 미루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3. 바울은 이 복음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이에게 선하게 대하고, 4.-5.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소요(riot)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어려움 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려움이 당연히 옵니다. 6-7. 그 어려움 중에서도 순결함과 이해와 인내와 친절과

성령과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를 양손에 들고 복음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8-10.** 그런데 이 복음의 직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의 영광과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욕됨이 공존하고, 핍박자들에게서 듣는 악한 이름과 믿게된 자들로부터 듣는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오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매를 맞지만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의 일반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인간의 지각에 뛰어남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빌 4:6-7).

**2. 대인관계에서의 아이러니 (11-13):** **1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12.** 그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마음이 좁아져 바울에 대해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행 20:35). 사랑하는 자가 사랑 받는 자보다 더 행복을 느낍니다. 물질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부요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연한 결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이 손해 보지 않으면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 11:24-25>\*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3.**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열어라고 권합니다. 저도 형제자매님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권합니다.

**3.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 (14-18):** **14.** 믿는자와 믿지 않는 자는 빛과 어둠 같아서 합쳐질 수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 라는 말은 고전 7장에서 언급된

결혼을 비롯한 생활의 중요한 활동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결혼을 하면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15. 벨리알은 무법과 암흑의 귀신이란 뜻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믿는자와 믿지 않는 자도 조화될 수 없습니다. 16. 믿는자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 둘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17.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거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립(isolation)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separation)되어야 합니다. 교회(ekklesia)라는 말의 의미가 따로 불러 세운 믿는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믿는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없다면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믿는자의 아이러니는 세상과 분리될 때에 그 의무인 복음전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가 물과 섞이면 파선하지만 물과 분리해서 물위를 갈 때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 8-18-02, 근심 중의 위로 <고후 7:1-16>

<서론> 지난 주일은 고후 6 장을 본문으로 해서 믿는자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믿는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자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는자들은 이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함으로 믿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 상식이나 논리로서는 설명이 잘 안되는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7:1-16 절은 또다른 아이러니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심 중의 위로입니다. 믿는자들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7:1 은 6 장에 붙은 절입니다. 2-4 에서 바울은 믿는자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5-13 상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한 후에 회개함에 이르는 것을 보니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13 하-17 에서는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근심 중의 위로입니다.

1. 교제를 통한 위로 (2-4): 7:1 에서 바울은 6 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믿는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성화 되어서 영과 육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고난 후의 성화에 대한 오해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결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마 5:16>\* 2.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음을 닫게 되니 바울은 권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3. 바울은 고전 9:1-15 에서 자신의 사도됨과 그의 사역에 대해 변호를 했는데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대해 호의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함께 죽고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간의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성도들의 변화를 통한 위로 (5-13 상):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교회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후에

또다른 편지를 써서 그의 동역자인 디도편으로 부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중간 지점인 마게도냐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5-7** 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 밖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의 변론이 있었고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6-7** 그런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대한 오해가 풀려 바울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8-9** 바울의 강한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근심으로인해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되었으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10.**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되어, **11.**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불의에 대해 분개하게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하고, 바울에 대해 좋은 열심을 갖게 하고, 불의를 잘 처리하게 했습니다. **12.** 바울이 쓴 편지는 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3 상.**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헌신되고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결정하는 것을 볼 때 근심 중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3. 동역자를 통한 위로 (13 하-17):** **13 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할 뿐아니라, 디도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14-15**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한 것은 아니고 교회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송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좀 했는데, 디도가 직접 경험해보니 과연 그들이 잘 순종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니 바울의 자랑이 맞구나 라고 느낄 뿐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7.**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 생명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지하고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 강철 형제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랑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형제님도 그 사실을 바로 보시리라 기대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일할 때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 9-1-02, 풍성한 은혜 <고후 8:1-15>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중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해 환난과 근심 중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고후 7:1-16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8:1-15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의 예를 들면서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권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저희들이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뢰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빌 4:10-20> <살전 4:9-12>. 베뢰아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편지를 쓴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몇 이론들이 있지만 행 17:10-12을 보면 베뢰아 교회는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서 바울이 편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론도 상당히 근거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7 절은 풍성한 연보에 대한 권고이고 8-15는 연보를 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풍성한 연보 (1-7): 1.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려니 좀 민망했든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다른 교회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말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돈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돈에 예민합니다. 사실 연보 문제는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이고, 정상적으로 주님께 풍성한 연보를 하면 자신이 좋지 저에게는 별 관계가 없기도 하고, 또 요즘 보니까 재정적으로 풍요해져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문제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서 기쁨이 넘쳐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어려우니,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으니 연보를 못하겠다는 것은 연보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형편에 관계없이 돈이 아까우니 연보를 못합니다 라는 것은 정확한 이유가 됩니다. 제한된 돈의 양에서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마 6:21>.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압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주님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면 좋습니다. 3.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연보했습니다. 4.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바울보고 다른 교회 도우는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연보가 참 연보입니다. 5. 연보를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헌신 없이 드리는 연보는 자신의 허영심과 교만의 충족일 뿐입니다. 6. 다른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디도를 통해 다른 교회를 위해 연보 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이 은혜를 성취하라고 권고합니다. 남을 위해 연보 하는 것은 은혜임을 인식하십시오. 7.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진실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일에 풍성하다고 하니 연보 하는 것도 풍성하게 잘 하라고 권고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돈 문제에서 주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연보는 풍성하게 해야합니다.

2. 연보의 원인과 결과 (8-15): 8. 바울은 연보 하는 것에 대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요 13:34-35> <딤후 4:1-2>. 연보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권고입니다. 9.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부와 영광과 권위를 버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부와 영광과 권위를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남도 도와주고 연보도 해야됩니다. 이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잘못되어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서 연보하고 돈 잃고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10-11.** 고린도 교인들이 1 년 전에 연보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끝맺음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1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13.** 연보 하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평균이 됩니다. **14.**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다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꼭 그 사람에게서 다시 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5.** 하나님께서 다 평균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것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해서 부자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풍성하게 베풀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힘에 지난 풍성한 연보를 해도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주님께서 채워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손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 안되는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다 바치더라도 부족할 뿐입니다. 연보는 있는 대로 하십시오. 가끔은 필요에 따라 힘에 지나도록 해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후 9:10>. 평생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조차도 돈을 계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물질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9-8-02, 덕을 위한 절차들 <고후 8:16-9:5>

<서론>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을 통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바울은 권했습니다. 연보를 풍성히 한다고 해서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8:16-9:5 에서 바울은 연보를 준비할 때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를



말한 후에, 준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연보를 드리고 그 연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덕을 세우기 위한 절차들이라고 생각되어서 설교 제목을 덕을 위한 절차들이라고 정했습니다.

1. 선한 일에 대한 조심 (8:16-24): 16.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을 디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 고후 8:6 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일년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거두라고 권고했을 때, 디도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18. 이제 일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토록 하기 위해 디도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에게 칭찬 받는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19 절은 그 사람에게 대한 바울의 신뢰를 말해줍니다. 20-21. 이처럼 연보를 위해 조심하는 이유는 디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깨끗하면 되지 사람을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부지 구입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보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2. 디도와 다른 한 형제 외에 또 바울과 함께 있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 신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와 관련하여 모두 세 형제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일을 안전하게 그리고 덕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절차들을 밟게 된 것입니다. 23.에서는 디도와 다른 형제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표현합니다. 디도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친구요 교회를 위한 동역자이며, 다른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딤후 1:4 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라고 했는데 디도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는 같은 동역자로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4.** 그러므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니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바울이 그들에게 한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권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정상적이고 건전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2. 준비된 연보 (9:1-5):** 이제 바울은 9 장에서 연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5** 절에서 바울은 연보는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2** 성도 섬기는 일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성도 섬기기를 원했고 또 일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3.** 그래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연보할 준비를 미리 시켜서, 일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는 자랑이 헛되게 안되고, 바울이 자랑한 대로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나중에 혹시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되면, 고린도 교인들도 민망하고 바울도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염려했었습니다. **5.**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내어 고린도 교인들을 권고해서 일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보는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보할 때 준비해서 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월급을 받으면 미리 주님께 바칠 것을 준비해서 떼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잘 배정해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월급 받아 돈을 급하고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남은 돈으로 연보하고 남은 도와 주려면 거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 연보가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돈은 얼마를 버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 미리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좋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주님께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신 8:17-18>. 준비된 연보를 하고 남은 돈을 잘 관리해서 건전한 재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6:2>.

### 9-15-02, 즐겨 드리는 자의 복 <고후 9:6-15>

<서론>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덕을 위한 절차들이었습니다. 고후 8:16-9:5 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남을 도우기 위한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에 근거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결정됩니다. 하늘나라를 중시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일을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중시하는 자는 이 세상에 관계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을 전혀 못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9:6-15 에서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후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즐겨드리는 자의 복인데, 이 설교 잘못하면 흔히 다른 목사들이 주님께 바치면 복 받으니까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십일조만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즐겨 드리는 자의 복 (6-11): 6. 하나님의 법칙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할 원리입니다. 연보 드리는 것을 씨를 심는데 비유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으면 금방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싹이 안 나온다고 다시 땅을 파면 씨뿌린 것이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갈 6:7-10>\* 7. 연보할 때는 미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얼마를 드릴 것인가 결정하고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거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려면 차라리 연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보 안 드리면 돈이라도 절약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8 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8.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풍성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전체를 못 보고 지엽적인 것만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를 자신이 해결해 나가려 하니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9. 즐겨 드려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되면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장사를 하려면 이런 장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 기쁘시게 해 드리면 만사가 형통한데 엉뚱한 짓 하느라고 힘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풍성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것은 참 믿음으로 연보 하면 물질적으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 37:25-26>\*. 오히려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11. 그래서 연보도 더 너그럽게 하도록 해서 그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합니다. 평생 물질에 매여 자질구레한 계산이나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그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은혜 (12-15): 12. 교회에 연보를 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되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필요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합니다. 13. 연보 하는 사람 쪽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증거가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물질적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고 좋은 형제자매를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1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도와준 사람을 위해 기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도움으로 인해 도와준 사람을 좋아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성도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15.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 하면서 연보에 대한 권고를 마칩니다. 정상적인 연보를 잘 하면 이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바치는 사람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풍성하여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경제적 도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또한,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 기도 드리고 그를 사모하게 됨으로 성도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석삼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연보해서 이러한 세 가지 복을 다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10-6-02,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고후 10:1-18>

<서론> 고후 8-9 장에서 너그러운 연보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10 장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육체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제목도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 (1-6): 1. 바울은 멀리서 편지를 할 때는 담대하게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데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말을 담대하게 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리서 편지를 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다고 말합니다. 갈 2:11-14 를 보면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바로 눈앞에서 그를 책망한 것을 보면 그 때 바울이 많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산다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다른 지도자들 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괜히 옆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아주 용감히 대응했는데 그런 태도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3.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육체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무기인데 이 무기는 영적으로 굳은 마음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논리를 정복하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사고방식들을 정복해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철학과 논리는 죽음에서 끝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져다줍니다. <롬 1:16>. 이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6. 고린도 교인들의 복종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사고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시 37:5-6 과 잠 3:5-6 은 주님께 복종하는 자의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다른 사역자를 인정하는 자 (7-11): 7.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피상적으로 일들을 판단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라는

점만 가지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도이고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8.**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권과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 항상 다른 사람을 복돋우어 주고 세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사역자들의 임무입니다. **9-11** 바울은 자기가 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바울은 편지는 강하게 쓰는데 만나면 말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편지 쓰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동일인물, 즉 바울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의 조그만 흠을 확대하거나 없는 흠을 일부러 만들어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3. 자신의 한계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자 (12-18):** **12.**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목사님들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기도 비교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13-14** 바울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갈 6:14>. **15.**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서 복음전하는 일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그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7.**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의 복음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18** 스스로 아무리 자랑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허사입니다. 천국가면 자기자랑이 안 통합니다.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정말 칭찬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고 난 다음에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살아 있을 때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과 천국에서 칭찬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 자랑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7-6-03, 의의 일군 <고후 11:1-15>

<서론> 약 9 개월 전 제가 안식년을 시작하기 전의 설교원고를 보니까 고후 10:1-18 을 본문으로 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 9 개월간 이 강철형제님께서 대신 설교를 하심으로 제가 잘 쉬고 한국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형제님과 우리 형제자매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설교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그 문제들에 대해 주님의 뜻을 기술한 편지들입니다. 고후 10 장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후 8-9 장에서 너그러운 연보에 대해 설명한 후, 고후 10 장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 변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육체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의 본문인 고후 11 장인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일군은 복음을 정확히 전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거짓 일군들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제목은 '의의 일군'입니다.

1. 복음을 정확히 전함 (1-6): 1. 바울이 다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변명을 하려니까 자연히 자기 자랑을 할 것 같으니 자기를 좀 용서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자기



자랑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색하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님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 바울이 열심을 내는 목적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역자들은 주님께 드러져야 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3.** 신기한 것은 사람들도 그러한 목회자를 좋아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4.** 고린도 교인들도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면 배척하고,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 목적에 부합되는 설교를 하면 환영합니다 <딤후 3:1-5>\* 5-6.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정확히 전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유명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히 전할 뿐아니라 그 원리를 실재의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복음적이었습니다 <갈 2:11-14>.

**2. 값없이 복음을 전함 (7-11): 7.**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자비량 목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비량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나 성도들은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합니다 <마 10:8>. 어떤 분은 다른 직장은 가지지 않고 복음만 전하니까 그 생활비를 교인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사례비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마 10:9-10>. **8-9**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 궁핍했기 때문에 빌립보 같은 다른 교회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폐를 끼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10.** 이 자비량에 대한 자랑이 아마 어리석은 자랑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11.**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그들을 덜 사랑하는 표가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3. 거짓 일군과 의의 일군 (12-15): 12.**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말합니다. 계속 복음을 값없이 순수하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바울과 다름없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고 자랑하려는 그 자랑의 기회를 끊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13-14** 당시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는 꾀술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딤후 6:3-5>에 의하면 그들은 복음 이외의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말입니다. 흔히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거짓 사도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목회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명예를 추구해 대형교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한국의 한 후배 목사님과의 이야기. **15.**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쉬빌에서도 큰 교회 목사라고 거만하게 큰 소리 치던 몇몇 목회자들이 다 금전 문제와 다른 일들로 인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 안에서 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정확히 값없이 순수하게 전합시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또, 거짓 사도와 의의 일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 7-13-03, 담대함과 약함 <고후 11:16-33>

<서론> 지난주에는 고후 11:1-15 를 본문으로 해서 '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일꾼은 복음을 정확히 전합니다.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다른 교훈, 즉, 자신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되는 말들을 좋아하지만 의의 일꾼은 복음을 정확히 전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거짓 일꾼들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공정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후 11:16-33 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기자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도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제목은 '담대함과 약함'입니다.

**1. 나쁜 일에 너그러운 사람들 (16-20):** **16.**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어리석은 자로 여기기를 바라지 않지만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려니 어차피 자랑을 좀 해야 하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17-18** 자기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만 워낙 다른 사람이 많이 자랑하니 나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19.** '다른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도 잘 용납해 주더군요' 그 말입니다. **20.** 심지어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교인들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꾸중을 심하게 하거나 뺨을 때리더라도 잘 참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 준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를 꿈쩍 못하게 잡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착취하면서, 가끔 조금씩 잘 대해 주면, '야! 우리 목사님 참 리더쉽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영권 있다고 과장하면서, 거짓말도 슬슬 하고, 복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축복해 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영권이 세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자신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의의 일군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정확히 값없이 전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도록 말없이 모범을 보이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무시합니다. 저도 처음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교수 생활이 여유가 있으니까 목회를 하지요"라고 했습니다. 여유 있다고 다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으면 골프 치고, 여유 있으면 다른 사업해서 돈 더 벌지 왜 목회 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러한 오류를 범치 마십시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를 존경하기보다는, 참으로 두려워 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참으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바울의 어리석은 담대함 (21-29):** **21.**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리석게 담대하게

자랑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22.** 히브리인이란 말은 순수하게 히브리 부모를 가졌으며 당시의 유대인 전통어인 아람어를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12** 지파 중의 하나인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적 혈통을 자랑하니까 바울도 혈통적 조건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정통 장로교인이며' 이런 소리입니다. **23-27**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전하는 사도로 고난과 역경을 겪은 것을 자랑합니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39** 대 매도 맞고 <신 **25:3**>, **3** 번 태장 한번 돌에 맞고, **3** 번 파선되어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도시, 시골,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고, 못 자고 못 먹고 못 마시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28-29** 이 모든 육신적인 고난 외에도 교회를 위하는 애타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약해지든지 실족하든지 하면 그 하나하나에 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요,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비록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헌신과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조금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 잠잠해졌고 지금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3. 약함에 대한 자랑 (30-33): 30.** **23-29** 절까지의 담대한 자랑은 사실 바울의 약함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와 배고픔을 당한 것입니다. **31.** 앞의 이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임을 밝힙니다. **32-33** 이 다메섹의 사건은 행 **9** 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회심 후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은 가말리엘 문하의 정통적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후,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전하며 예수는 곧 우리의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관리들의 힘을 빌려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때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었습니다. 바울은 이 수치스러운 일과 약함을 예수님 때문에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조그마한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와 많이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 7-20-03, 약함에 대한 자랑 <고후 12:1-10>

<서론> 지난 주일의 본문은 고후 11:16-33 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잘 못된 가르침을 잘 용납하는데 대해 바울이 불만을 토하고, 자신의 육신적 조건을 담대하게 말한 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 외에도 교회를 위해 항상 염려한 그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후 12:1-10 로 '약함에 대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신령한 경험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시를 위해 세 번이나 기도 드렸는데 결국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점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 바울이 받은 계시와 그의 태도 (1-6): 1.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닌 줄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본 환상과 받은 계시를 말하려 합니다. 2.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고,'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고' 하는 요즈음 환상 보는 사람들하고는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십 사년 전' 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자신이 본 환상을 십 사년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하고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꿈 하나 꾸었다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다 말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밝혀져 창피 당하는 요즈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골 2:17>을 보면 잘못된 사람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을 과장해서 아전인수 하다가 망신당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상인데 신앙 이야기를 하면 비정상이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보여 주시는 복음의 원리와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체 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3 절에서 그 모른다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4.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5.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말을 슬쩍 돌립니다. 6. 자랑을 해도 사실을 자랑하면 어느 정도 봐 줄 수 있는데 대개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과장해서 자랑하니까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또, 사실을 자랑하더라도 듣는 사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으면 그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침소봉대가 거나 지나친 과장이 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덕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2. 약한데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 (7-10): 7. 바울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신체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했으니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8. 바울도 그 가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이 3 초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앓은병이도 고치고, 에베소에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도 살렸던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은 고치지 못하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9.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은 약한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역사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역사 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역사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패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0.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곧 주님께서 역사 하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많이 할텐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약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 8-3-03, 복음을 위한 희생 <고후 12:11-21>

<서론> 2 주전에는 고후 12:1-10 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약함에 대한 자랑'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즉 자신의 약점들이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좋은 요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들에 대해 자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후 12:11-21 인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로 인해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보게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제목은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1. 복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음 (11-13): 11. 자신의 육체적 조건에 대해 자랑을 해서 민망하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어떤 사도들에 비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했었습니다. 12. 그의 사도직은 단지 형식적 자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와 목회에서의 인내와 표적과 기적과 성령으로인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행적은 고후 4 장과 11 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서는 전도와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하고 로마 교회 같은 곳에서는 만나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선교비를 후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장막을 만들어 팔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은 것 외에는 다른 교회에 비해 부족하게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공평치 못한 자신의 처사를 용납하라고 약간은 비난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받는 것처럼 사례비도 받지 않고 전도하는데, 나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느니 하면서 나를 배척할 수 있는가?" 하는 비방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배려를 하고 더 희생적으로 목회 했는데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척과 비방이 돌아오게 되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런 허물들이 다 덮이겠지만 인간적인 서운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고전 9:15>에 "내가 차라리 죽을찌언정.."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의 권리, 즉 경제적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언급을 보아 바울의 인간적 섭섭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고 배려한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듣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2.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함 (14-18): 14. 이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행 18 장에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장막을 제조해서 팔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의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입니다. 그 편지 때문에 교회에 더 큰 어려움과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의 방문하려 합니다. 이전처럼 이번에도 역시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체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영적인 복이 될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5.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재물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까지 희생하려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자신을 희생하면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들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6.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 말을 지어내어서, 바울이 교회에 짐은 안 지웠지만 교묘하게 사람들을 착취했다고 비방한 것 같습니다. 17-18 바울의 사역팀 중에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연보 문제로 디도와 또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을 대하지 않았던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드릴 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생에는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3. 덕을 위한 기대들 (19-21): 19. 바울이 말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난 모양입니다. "내가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다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지도 제법 되었는데 성숙한 자로 잘 행동해야 다른 교인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면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20.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 자랐을 것이라고 기대 했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실망이 많이 될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무질서를 보이게 됩니다. 성숙한 자들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1.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실까 염려하고 전에 죄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지은 잘못에 대해 깨끗이 정리하지 아니하면 사역자와 다른 형제들에게 누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신까지 희생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08-10-03, 성숙한 그리스도인 <고후 13:1-13>

<서론> 지난주의 본문인 고후 12:11-21 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행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더라도 교회에 경제적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알려주고, 또 이 모든 권고와 교훈이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 주기 위해서 바울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후 13:1-13 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인데, 바울은 자신이 가면 전에 죄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전 3 장에서 고린도 교인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한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으로 정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표를 얻어 생활에서 주님만을 나타내며,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치리에 대한 경고 (1-4): 1-2. 이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잘못된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은 사람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다 치리 하겠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책벌이나 출교등을 통해 치리 해야 할 것입니다. 3.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한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 그들을 벌하겠다고 버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라 그의 성도 안에서 강한 분입니다. 4.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약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실은 그 분은 당신을 잡으려는 온 무리를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멸망 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랑으로 죽음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의 강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군들도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부드럽고 약하게 보이지만 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의의 일군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고후 4:8-9>. 구약에서는 모세를 대항하던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갈라진 땅 속으로 빠져 멸망한 기록이 나옵니다 <민 16:1-35>.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 목사 잘 대접하면 복받는다고 아전인수의 교훈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 13:17>.

2. 진리를 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5-10): 5.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났는지 시험해 보라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에 근거한 생활을 하는지 시험해 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시험에 실패한 (버리운) 것이 됩니다. 믿음 중심의 삶이란 구원을 얻을 때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에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후에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열심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힘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이 나타납니다. 교회 봉사, 연보, 심지어 복음 전하는데도 자신이 나타납니다. **6.**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7.**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한 자처럼 나타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8.**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려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활을 합니다. 신명기 **28**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조건들과 결과들을 주셨습니다. 그 저주들을 보면 어떻게 이 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잠 **29:1**> **9.** 바울은 자신이 약해지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강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원했습니다. **10.** 그들의 성숙을 위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성도를 폐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세워 주는데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3. 마지막 인사 (11-13):** **11.**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며,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 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12.** 서로 문안하라고 부탁하고,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안부도 전합니다. **13.**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목사들이 축도할 때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축도는 그냥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가 복을 비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